

The Gospel of Mark

Sermon 22: Sermon Notes

Title: "Rejected"

Scripture: Mark 6:1-6

Date preached: January 29th 2023

Scripture: Mark 6:1-6

1 Then He went out from there and came to His own country,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2 And when the Sabbath had come, He began to teach in the synagogue. And many hearing Him were astonished, saying, "Where *did* this Man get these things? And what wisdom is this which is given to Him, that such mighty works are performed by His hands! 3 Is this not the carpenter, the Son of Mary, and brother of James, Joses, Judas, and Simon? And are not His sisters here with us?" So they were offended at Him.

4 But Jesus said to them,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except in his own country, among his own relatives, and in his own house." 5 Now He could do no mighty work there, except that He laid His hands on a few sick people and healed them. 6 And He marveled because of their unbelief. Then He went about the villages in a circuit, teaching.

1 예수님이 그 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2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저 사람의 이런 지혜와 놀라운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3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사람의 누이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4 신 예수님은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5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 수가 없어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 6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셨다.

Review

Before we carefully consider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take some time to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In our last sermon we concluded the dual miracle story. Mark cleverly weaved together the accounts of the healing of the woman with the flow of blood and Jairus' daughter. Both took place in some unidentified town on the western shore of the Sea of Galilee. The Lord Jesus is approached through the crowd by one of the rulers of the synagogue. A man named Jairus. His 12 year old daughter is very sick. He wanted Jesus to come and lay His hands upon her. Jairus had faith that Jesus possessed the power to restore his daughter to full health. But there were some limits to his faith. He held the commonly held superstition that the healer had to be physically present in order to heal. We know that this was not necessary with the Lord Jesus.

Given the girl's precarious condition Jairus considered it vital that Jesus came quickly. No time should be wasted. This was not how things worked out.

On the way to Jairus' house Jesus is delayed by his healing of, and subsequent interaction with the woman with the 12 year flow of blood. Whilst He is conversing with her, household staff members arrive to tell Jairus that it is too late. His daughter has died and there is no longer any need for Jesus to come. Jesus overhears these words and tells Jairus not to be afraid and only to believe. Or

perhaps more accurately to keep on believing. Taking only Peter, James and John, Jesus makes His way to Jairus' house. When they arrive the professional mourners are already there. These people were paid to wail, moan, cry and sing upon the occasion of a death. The Lord Jesus tells them to leave. Their services are not required because the girl is not dead she is merely sleeping. Of course Jesus knew that technically the child had died, but what He means is that for her death will be like sleep. Something you awake from. The mourners laugh and ridicule Jesus for making such a silly assertion and so Jesus sends them out. Then taking His chosen disciples and the girl's parents they go into her room.

Upon entering Jesus picks up the girl's hand and says to her, "little girl, wake up." Mark is very clear on what happens next. This healing was instant. No sooner had Jesus spoke than the girl stood up and began to walk around. It really was just as if she had awoken from a restful sleep. All those watching were understandably amazed. The Lord Jesus commanded them to keep what had happened quiet. He didn't want His ministry to be affected by people constantly seeking him out. This was where we finished last time.

Today we begin chapter 6. The chapter begins with Jesus being rejected by His own countrymen. The motif of unbelief recurs as we will discover several times in this section of the gospel.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let us pray.

오늘의 성경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이중 기적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마가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야기를 교묘하게 엮었습니다. 둘 다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에 있는 정체불명의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중 한 사람이 군중을 뚫고 주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12살 된 딸은 매우 아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께서 딸을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치유자가 치유를 위해 육체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신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소녀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감안할 때 야이로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일이 잘 풀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병고침으로 인해 지체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녀와 대화하시는 동안 집안 식구들이 야이로에게 너무 늦었다고 알리기 위해 도착합니다. 그의 딸은 죽었고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엿듣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계속 믿는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전문 애도자들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통곡하고, 신음하고, 울고, 노래하도록 돈을 받았습시다.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들의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술적으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분이 의미하는 것은 그녀의 죽음이 잠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것. 조문객들은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이 택하신 제자들과 소녀들의 부모를 데리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Mark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이 치유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소녀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만 같았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놀랐습니

다. 주 예수님은 일어난 일을 조용히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그분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그분의 사역이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끝낸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6 장을 시작합니다. 이 장은 예수님이 동족에게 배척당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동기 또는 불신앙은 우리가 복음의 이 부분에서 여러 번 발견하게 될 것처럼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기도합시다.

1 Then He went out from there and came to His own country,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Most bible scholars assume that Jairus was the ruler of the synagogue in one of the small towns that lined the western shore of the Sea of Galilee. After healing the woman with the flow of blood and Jairus daughter Jesus leaves this town. Accompanied by His disciples Jesus travels up into the hilly areas west of the sea. These familiar trails and paths eventually bring Him back to His home-town of Nazareth. This was where He spent His boyhood, and in fact most of His life until beginning the period of His ministry. It's true that He made Capernaum His base in Galilee but Nazareth would always be the place He was associated with.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home-town? Our feelings are sometimes mixed. We often have complicated feelings for the place in which we grew up. Maybe we do not have very fond memories. School or family life was not good. Perhaps, as in my case your home-town was really boring with nothing much going on. As a result you may have been happy to leave to start again in a new and more interesting place. Others feel a great sense of pride or warm nostalgia when they think of their home-town. They associate it with positive memories and happy times.

We don't know how Jesus felt about Nazareth. Probably He had fond memories of growing up there, But as we will see His visits as an adult were not positive. The gospels specifically mention Jesus visiting His home-town on only two occasions. The first visit is recorded in Luke's gospel (chapter 4). This first visit was at the moment that Jesus was announcing His arrival on the world stage and just beginning His public ministry. What we are looking at here in Mark is the Lord's second visit. On both occasions, here in Mark and in Luke He is met by scepticism and ultimately rejection.

We will talk about this more later.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야이로가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을 따라 늘어선 작은 마을 중 하나에 있는 회당의 통치자라고 추정합니다.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 예수님은 이 마을을 떠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 서쪽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친숙한 길과 길은 결국 그분을 고향인 나사렛으로 데려갑니다. 이곳은 그가 소년 시절을 보낸 곳이며 사실상 그의 사역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그의 삶의 대부분을 보낸 곳입니다. 그분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그분의 근거지로 삼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나사렛은 항상 그분과 관련된 장소였습니다. 고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감정은 때때로 혼란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자란 장소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다지 좋은 추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나 가정 생활이 좋지 않았습다. 아마도 내 경우처럼 당신의 고향은 별 일 없이 정말 지루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새롭고 더 흥미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떠날 수 있어 기뻐할 것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크나큰 자부심이나 따뜻한 향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긍정적인 기억과 행복한 시간과 연관시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사렛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성장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으로서의 그의 방문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것을 단 두 번만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누가복음(4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방문은 예수님이 세계 무대에 오셨음을 알리고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주님의 두 번째 방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여기 마가와 누가에서 그

분은 회의론과 궁극적으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Let me say a few words here about the town of Nazareth. Today if you visit Nazareth you will find a bustling modern Arab Israeli city with a population of around 80,000 people. It is the largest city in the northern district of Israel. But the city you see today does not reflect how it was in antiquity. You see, although the town has a very ancient history for most of its life it was a small and insignificant place. It only really began to flourish and grow from the 1850s onward.

So, when you picture the Nazareth of the first century imagine a small hill side village. A town full of conservative Jewish families. People who were occupied by farming, growing crops such as olives and tending their animals. It's often difficult to determine how big ancient settlements were. But in the case of Nazareth we have a very good idea of its size. This is because of the tombs. The dead had to be buried at the outskirts of a town for obvious reasons. So, when we discover tombs on four sides of a settlement site we can make quite accurate estimates. Archaeological excavations have shown that the ancient town of Nazareth occupied an area of no more than 600 meters by 198 meters.

This means that in terms of population perhaps 200 to 400 people lived in the town. Many of them would have been related, extended families or tribal clans, and certainly everyone knew everyone else. They would have been very familiar with Jesus and His family. Let us read on.

여기서 나사렛 마을에 대해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나사렛을 방문하면 인구 약 80,000 명의 분주한 현대 아랍 이스라엘 도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도시는 고대의 모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을은 대부분의 삶에서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1850년대 이후에야 실제로 번성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1 세기의 나사렛을 상상할 때 작은 언덕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수적인 유대인 가정으로 가득한 마을. 농사를 짓고 올리브와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고대 정착지가 얼마나 컸는지 판단하는 것은 종종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의 경우 우리는 그 크기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무덤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분명한 이유로 마을 외곽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지 4면에 있는 무덤을 발견하면 상당히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나사렛의 고대 도시는 600m x 198m 이하의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인구 측면에서 아마도 200-400 명이 마을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친족, 대가족 또는 부족 씨족이었을 것이며 확실히 모두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읽어 보시다.

2 And when the Sabbath had come, He began to teach in the synagogue. And many hearing Him were astonished, saying, "Where *did* this Man get these things? And what wisdom is this which is given to Him, that such mighty works are performed by His hands!"

When the Sabbath comes around Jesus and His disciples visit the local synagogue. This would have been a very well known and familiar place for the Lord. Not only would He have known the place well, but as a local they would all have known Him. As I have said before it was common to invite visiting rabbi's (teachers) to speak or to teach from the scriptures. The modern day parallel would be when we invite guest speakers or pastors to come and speak or preach. This very thing happened when Jesus last visited Nazareth. On that occasion given to us in Luke's gospel (chapter 4) Jesus is handed the book of Isaiah, and He reads to them from it.

What is the response to the teaching of the Lord Jesus? Mark tells us that all who heard His words

were “astonished.” This is the Greek word *ekplēssō* (pronounced ek-place'-so). It is used to describe a sense of being "struck with amazement" or "to be astounded" or "astonished."

But here is what is really striking. They readily admitted that He had unmatched wisdom, insight and understanding. They had heard about His miracles and did not doubt they had really occurred. But what was their conclusion? They are most concerned by the question of “how” Jesus was able to do these things. They wanted to know where the power and authority He had came from.

There are only two possible sources for authority and power. One is a human source. People have power because they are in a position of authority. A king or a ruler of some kind. This clearly didn't apply to Jesus. He had humble beginnings and from a human viewpoint had not been raised up or given a position of worldly authority. The only other way a person can have power or authority is if it is bestowed upon them through a supernatural source. Or more simply, that it is God who is giving them power or authority.

Now these are legitimate questions to ask. But, and here is the problem.

Their questions should have been the start of the investigation and not the end.

Asking these questions should have led on to the more pressing questions of “why” He was doing these things and “what” they meant.

Now I suppose from a human perspective we can understand their thinking. They had seen Jesus growing up. They knew His background and His family members. Perhaps they had even interacted or engaged with Him. We should remember that as a person of sinless perfection Jesus must have come across as a special and unique individual. This was no ordinary child or young man. So from the people's perspective Jesus left their town as a carpenter. Now here He is as a rabbi complete with a large following, speaking with great wisdom and able to perform amazing signs and wonders. It is logical therefore for the people of Nazareth to ask what exactly is going on here. Let us continue.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네 회당을 방문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매우 잘 알려지고 친숙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장소를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인으로서 그들은 모두 그를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방문 랍비(교사)를 초대하여 말하거나 경전에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현대의 유사점은 우리가 초대 연사 또는 목사를 초대하여 설교하거나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4 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건네받으시고 그들에게 읽어주십니다.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가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어 *ekplēssō*(ek-place'-so 로 발음)입니다. "놀라움에 사로잡힌" 또는 "놀라운" 또는 "놀라운" 느낌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와 통찰력과 이해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선뜻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기적에 대해 들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권위와 권력의 원천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인적 자원입니다. 사람은 권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왕 또는 어떤 종류의 통치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시작했으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세속적 권위의 지위를 높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힘이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다른 방법은 그것이 초자연적인 근원을 통해 그들에게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능력이나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것들은

합법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조사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어야 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셨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더 시급한 질문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배경과 가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심지어 그분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관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죄 없으신 완전하신 분으로서 특별하고 독특한 개인으로 오셨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아이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목수로서 그들의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큰 지혜로 말씀하시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많은 추종자들을 가진 랍비와 같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이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계속합시다.

3 Is this not the carpenter, the Son of Mary, and brother of James, Joses, Judas, and Simon? And are not His sisters here with us?” So they were offended at Him.

This verse very neatly captures the bewilderment of the people of Nazareth. Nothing seems to make sense to them. They knew Jesus as the town carpenter. As I have pointed out before the term used here for carpenter is the Greek word *tekton*. It meant far more than just working with wood. It might, depending on the context mean a builder, sculptor, shipbuilder, mason or a general craftsman. In most cases it implied a person of considerable skill. In the ancient world, just as today we rely on people who are good with their hands. Here though it is being used in a derogatory way. Basically they are suggesting that Jesus is nothing other than a common working man. He is not someone with special theological training, he had not been trained by another prominent rabbi. Therefore He was no one they should really take seriously.

You should also note carefully what they next ask. Isn't Jesus the son of Mary? Back when Jesus last visited Nazareth the people asked a similar question. See if you can spot the difference.

So all bore witness to Him, and marveled at the gracious words which proceeded out of His mouth. And they said, “Is this not Joseph’s son?” (Luke 4:22)

Did you notice the difference? On this second visit there is no mention of Joseph. There are two possible reasons for this. The first is that Joseph has died. This seems very likely as he is never mentioned in the gospels during Jesus' adult life. However it was common practice to use the father's name whether he was alive or dead. Certainly these people knew the name of Joseph even if he had died at this point in history.

So, the second reason that Joseph is not mentioned is because they are insulting Jesus. They are calling into question the legitimacy of Jesus' birth. In a small town rumours would have spread quickly regarding Mary and the fact that she was clearly pregnant before marrying Joseph. So in challenging Jesus's origins they are calling into question whether He is someone worth listening to.

The same can also be said for their deliberate naming of His half brothers. They were well known to all the locals but there was nothing special about them. Why did they not have the same power and wisdom as Jesus?

As an aside here it is worth noting how this verse has been interpreted over the centuries. For Roman Catholics and the Greek Orthodox church this mention of Jesus' brothers and sister is a problem. The problem arises from their misguided understanding of Mary as being the perpetual virgin. They teach that even after marrying Joseph the couple never had sexual relations, and that these sons and daughters are from Joseph's "former marriage." For protestants, it is not a problem.

After the birth of Jesus, Mary and Joseph lived a full and normal married life and went on to have a number of children. These were Jesus's half brothers and sisters. Isn't that the plain and obvious way to read and understand what Mark records here?

But what's really going on here. Why are the people of Nazareth talking about Jesus' brothers and sisters. In effect, they are saying, we know this man and His family. We know His history and all He has done. Who is He to come here and expect us to listen to and follow Him.

For all these reasons they are offended by Jesus. The word used here for "offended" is the Greek word *skandalizō*. As you can probably guess it is the origin of our modern word "scandalized." It means to "cause to stumble," or to "impede the way." In this case I think we can best describe it by saying they were "put off" or even "repelled" by Jesus. Let us see how the Lord Jesus responds.

이 구절은 나사렛 사람들의 당혹감을 아주 깔끔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목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목수에 대해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헬라어 *tekton* 입니다. 그것은 단지 나무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문맥에 따라 건축업자, 조각가, 조선업자, 석공 또는 일반 장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여기서는 경멸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예수가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며 다른 저명한 랍비에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이 진정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다음 질문을 주의 깊게 기록해야 합니다.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히 여겼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복음 4:22) 차이점을 눈치채셨나요? 이 두 번째 방문에는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성인이 된 예수의 생애 동안 복음서에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 있든 죽든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요셉이 역사상 이 시점에 죽었더라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언급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탄생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다면 마리아에 관한 소문과 그녀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기원에 도전하면서 그분이 들을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복형제를 의도적으로 지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지혜를 갖지 못했습니까? 여담으로 이 구절이 수세기에 걸쳐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에게 예수의 형제자매에 대한 언급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잘못 이해한 데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요셉과 결혼한 후에도 그 부부가 결코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이 아들과 딸들은 요셉의 "이전 결혼"에서 나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개신교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후 마리아와 요셉은 온전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으며 계속해서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복형제자매였습니다. 마가가 여기에서 기록한 것을 읽고 이해하는 평범하고 분명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들은 우리가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역사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기대하는 그분은 누구신가? 이 모든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상처받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칸달리조(skandalizō)입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현대 단어인 "scandalized"의 어원입니다. 그것은 "걸림돌이 되게 하다" 또는 "길을 막다"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께 의해 "거부당했다" 또는 심지어 "격퇴당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봅시다.

4 But Jesus said to them,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except in his own country, among his own relatives, and in his own house.”

Jesus responds to their rejection by either quoting, or else making up a proverbial saying. We might summarise what he is saying by the common maxim, “familiarity breeds contempt.” I bet you didn't know that this often used expression goes all the way back to Publius the Syrian, who lived in 2 BC. Basically it means that when you have a lot of knowledge, or in this case when you THINK you know a lot about a person or a subject you tend to lose respect for that person or subject.

Jesus came to them as a prophet. He brought a message that would transform their lives, but they would not listen. They could not really see Him because when they looked at Him all they saw was someone just like themselves. They looked but could not see. I like the way Kenneth Wuest describes what is going on here, he writes; “They could not explain Him, so they rejected Him.” Let us read on.

예수께서는 그들의 거절에 대해 인용하시거나 속담을 만들어 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친숙함은 경멸을 낳는다"는 일반적인 격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기원전 2년에 살았던 시리아인 푸블리우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당신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이 경우 당신이 어떤 사람이나 주제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나 주제에 대한 존경심을 잃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가져오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실제로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이 본 것은 그들 자신과 똑같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았지만 볼 수 없었다. 저는 Kenneth Wuest가 여기서 진행되는 일을 설명하는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그들은 그분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5 Now He could do no mighty work there, except that He laid His hands on a few sick people and healed them.

Mark here describes the outcome of their rejection of the Lord Jesus. He tells us that Jesus' work was “severely limited” in this climate of unbelief. He was able to perform a few healings but nothing like the number that He had done in other places in Galilee. We are not to understand this as meaning that the people's lack of belief or faith prevented Jesus from performing signs. Jesus did not in some way lack the power to perform miracles in Nazareth. God is never bound or constrained by human beings.

So why couldn't Jesus perform many mighty signs in Nazareth. To understand why, we have to appreciate why Jesus performed signs and wonders. God of course was demonstrating His love and mercy through them but this was not the main reason. God empowered Jesus with the ability to perform signs and wonders for one primary reason. It is that through them people would know that He was the Christ and Son of God prophesied by the OT Prophets. The miracles served as his certification, they were proof of His divine authenticity. In other towns and cities people believed in

Jesus. They repented and placed their faith in Him and as a result God did wonderful things in their lives.

But this was not the case for Nazareth. They had contempt for Jesus because they thought they knew Him. They knew His parents, His brothers and sisters, His occupation. They thought they knew His whole story. This familiarity resulted in contempt, pride and unbelief. So instead of coming to Him with an open or inquisitive mind they refused to believe in Him.

In practical terms they did not come to Jesus as they did in other towns and cities asking for Him to heal the sick. After all why would you go to someone you did not believe in, or openly despised.

So the reason Jesus could not do miracles was not down to Jesus but rather down to the lack of faith in the people of Nazareth. Let us move on to our final verse for today.

여기서 마가는 그들이 주 예수를 거절한 결과를 묘사합니다. 그는 이러한 불신의 분위기에 서 예수님의 사역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몇 가지 치유를 행하실 수 있었지만 갈릴리의 다른 지역에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의 믿음이나 믿음이 부족하여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지 못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유를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셨지만 이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주된 이유 때문에 예수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사람들이 그분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의 증명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신성한 진정성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다른 마을과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그분을 믿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부모, 형제자매, 직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친근함은 경멸과 교만과 불신앙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려 있거나 탐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대신 그분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병자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한 다른 동네와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신이 믿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경멸하는 사람에게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신 이유는 예수 때문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로 넘어갑시다.

6 And He marveled because of their unbelief. Then He went about the villages in a circuit, teaching.

What things in this world amaze you? What do you marvel at? A beautiful scene in nature, an astonishing work of art, an impressive piece of architecture or the delights of a musical composition. These may be things that at times amaze us.

None of the gospel writer ever mention Jesus being amazed by any of these things.

In fact, Jesus is only recorded as being amazed by one thing; faith. He marvelled when it was present where it might not be expected. And here He marvels that is not to be found where it ought to be present.

Why might faith have been expected to be present here in Nazareth? There are several reasons. The

first is that Jesus was known to them. As I said before Jesus was a perfect person. He never committed a sin. So He must have stood out as being someone special or unique. As a teacher I interact with many students each academic year. To be honest most students are not that very memorable. They don't particularly stand out and over time they become just a blur in my memory. But every once in a while you do meet a truly exceptional student. For whatever reason they capture your attention and you remember them. Surely Jesus was in this later group. Anyone living in Nazareth would have remembered Him as being not like the other boys or young men.

Secondly, even though Nazareth was a bit off the beaten track still news would have reached it about what Jesus was doing. People would have travelled up from Galilee or Capernaum and reported on Jesus' miracles.

Thirdly they had direct evidence from hearing Jesus speak. They marvelled at what He said and noted that He possessed power and authority. They of all people knew Jesus' background and education. They of all people should have been curious about how their former carpenter was now changing the world.

The bible does not state how Jesus felt emotionally by the response of His home-town.

We might imagine that He was saddened by their rejection. How He might liked to have helped His sick or elderly neighbours if only they had faith. Sadly the people in Nazareth represent the spiritual blindness of most of Israel both then and now. The Lord Jesus however was not put off from His mission. Despite the rejection He received in Nazareth He continued on to teach, preach and heal in the other towns in that region.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Jesus sending out the disciples to share the gospel.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당신을 놀라게 합니까? 당신은 무엇에 감탄합니까? 자연의 아름다운 장면, 놀라운 예술 작품, 인상적인 건축물 또는 음악 구성의 즐거움. 때때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서 기자 중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에 예수께서 놀라셨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에 놀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그는 그것이 예상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곳에 존재했을 때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분은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여기 나사렛에 믿음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지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특별하거나 독특한 분으로 돋보이셨을 것입니다. 교사로서 저는 매 학년도에 많은 학생들과 교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기억에서 흐려집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신은 진정으로 뛰어난 학생을 만납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끌고 당신은 그들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후기 그룹에 속하셨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분을 다른 소년이나 청년들과 같지 않은 분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둘째, 나사렛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릴리나 가버나움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경이로움을 느꼈고 그분이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배경과 교육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전 목수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끼셨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들의 거절에 슬퍼하셨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병들거나 연로한 이웃들에게 믿음만 있었다면 그분이 그들을 도우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슬프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

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의 사명에서 미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그 지역의 다른 마을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복음을 나누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1 Coming to the right conclusion about Jesus

The Lord Jesus Christ will always be a controversial figure. This is because He is exclusive.

He is the one and only saviour. We are all sinners, and He alone is the saviour. People in general don't like that. They don't like the notion of being labelled as a wretched sinner. And they particularly don't like the fact that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their miserable condition themselves. So as a result people try to minimise the value or importance of Jesus.

I'm sure you've heard people saying things like Jesus was just a great moral teacher. Or Jesus was just a really good man who tried to help the poor and down-trodden. What they don't want to admit is that He is God, and that He alone can save us.

What do you imagine the people in Nazareth said about Jesus. Well, we know what some of them said. That Jesus was the local carpenter. That He was the son of Mary. That He was the brother of James, Joses, Judas, and Simon. Perhaps they also said that He had always been a good neighbor. Kindly, respectful and considerate. Maybe they noted that He had always been a good worker and could be relied upon to do a good job. What they didn't do however was come to the right conclusion about Jesus. They never managed to put all the pieces together and realise who He really was. What an opportunity they missed. How many of them were sadly lost for all eternity because they rejected Jesus. The decision we make about Jesus Christ has eternal implications. So whenever we can let us help, encourage and guide those around us to come to the right conclusion about Jesus.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배타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그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죄인으로 분류되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나 중요성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는 단지 위대한 도덕 교사였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는 가난하고 짓밟힌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한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글썄, 우리는 그들 중 일부가 말한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의 목수였습니다.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의 형제였다. 아마도 그들은 또한 그분이 항상 좋은 이웃이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친절하고 존중하며 배려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분이 항상 훌륭한 일꾼이었으며 훌륭한 일을 하도록 의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조각을 맞추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놓친 기회.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슬프게도 영원히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영원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도록 돕고 격려

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2 Don't be put off by rejection

It's very easy in life to become discouraged by a lack of success. I recently heard a report about young people in the UK. In the UK, as in many other places it is very expensive to buy your own house. It requires that you save up for many years and make many sacrifices. Sadly many youngsters in the UK cannot imagine a future with them ever being able to afford their own property. As a result many are simply giving up on that dream.

When the Lord Jesus arrived in Nazareth He might have anticipated a better welcome. He would have hoped that the people came with an open mind to hear what He had to say. Sadly this was not the case. Their hearts and minds were closed and ultimately they rejected Him. Some might have taken this rejection, especially in their home-town to heart and given up. Not the Lord Jesus. There were other people who would hear and be receptive to His message.

The same thing applies to our own evangelism. Many, including our own family members may reject or ridicule us. They may say just as they did to Jesus. We know you, we know your history. Why should we listen to you now. But let us not be discouraged or put off. Let us share the gospel message with others. Let us hope and pray that God in His mercy may use our words to draw an unbeliever to Him. Just as in the case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may we never be put off by rejection.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해 낙심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나는 최근에 영국의 젊은이들에 대한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다른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집을 사는 데 매우 비쌉니다. 여러 해 동안 저축하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슬프게도 영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감당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사렛에 도착하셨을 때 그분은 더 나은 환영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열린 마음으로 와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닫혀 있었고 결국 그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일부는 특히 고향에서 이러한 거부를 마음에 품고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자신의 전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가족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거나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알고 당신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러나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복음 메시지를 나누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우리의 말을 사용하여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희망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처럼 우리도 결코 거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